

# 더딤과 진득함, 그리고 생존의 법칙

안진환 번역가·(주)인트랜스 대표

♣ 번역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 이 지면에 기고를 하는 번역가 선생님들 대부분이 번역의 괴로움을 강조할 것이라는 점 말이다 ♣ 그러나 나는 다르다 ♣ 번역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싶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번역회사를 운영하며 번역으로 먹고살고 있는 마당에 새삼 번역의 괴로움이나 토로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는가 ♣ 더욱이 온라인·오프라인 번역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 괴로운 한숨만 내쉬는 선배를 보고 누가 번역가의 꿈을 키우려 하겠느냐는 얘기가

♣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번역의 장점과 즐거움을 강변해 보기로 결심했다 ♣ 먼저 장점부터 나열해 보자 ♣

번역계(보다 큰 의미로는 출판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우선, 무한한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이쪽 일은 재정적 규모가 비슷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디게 돌아간다. 책을 검토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번역에 들어가기까지 대개 1, 2주, 번역 작업에 2, 3개월, 편집작업에 1, 2개월, 출간 후 번역료 정산까지 또 1, 2개월, 때로는 한 1년쯤 지나야 관련된 모든 일이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세계약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금방 배우게 된다. 조급증을 고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분야에 들어와 일을 해봐야 한다. 여기서 쌓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참으로 진득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출판계에서는 또한 고도의 심리전을 배울 수 있다. 출판계라는 곳이 '먹물들'의 집합소라 확실히 노동관하고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친구 높은 도통 우리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쪽에서는 '돈 갖고 와서 물건 찾아가기' 같은 무식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일 자체는 중노동과 하나 다를 바 없어도, 이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원고가 늦어져도 결제가 늦어져도 조건이 탐탁스럽지 않아도, 속은 끓아터질지언정 늘 환한 얼굴로 공손하게 심리적 압

박을 가하는 방식을 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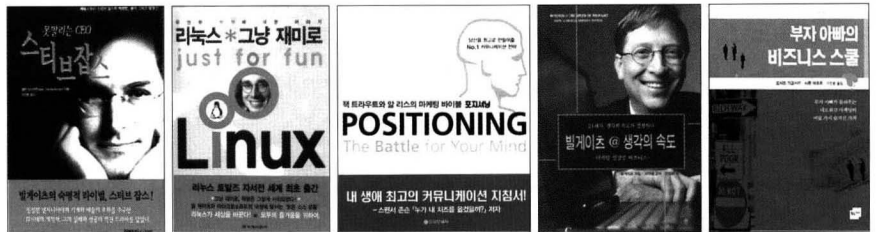
근자에 들어 이러한 품위를 저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나마 이만큼 점잖은 곳을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머릿속으로는 속셈에 열중하면서도 교언영색을 잃지 않는 가운데 밀고 당기는 심리전, 아마 정치판 다음으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출판계가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출판계는 사회적 생존과 인간 승리의 산 교육장이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에 이르는, 감동의 파노라마를 무수히 접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다. 그들이 성공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바꿔치기, 뒤집기, 엮어치기, 베치기' 등의 전략·전술은 삼국지의 그것들보다 훌륭하다. 이런 것을 두고 편법이니 도덕불감증이니 비난하는 사람은 생존의 법칙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상주의자에 불과하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지지분해 차라리 도태의 길을 선택하는 자를 보며 눈물은 흘려줄 수 있어도 박수는 쳐줄 수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나 또한 이러한 복마전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 미력한 힘이나마 한몫 보태고 있다는 데에 대해 작은 보람을 느낀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 글을 쓴 안진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이자 영어강사로 활동하면서 번역회사 (주)인트랜스(www.intrans.co.kr)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Practical Translation of English》가 있으며, 역서에는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The One Page Proposal》, 《포지셔닝》, 《빌 게이츠@생각의 속도》, 《리눅스, 그냥 재미로》, 《스티브 잡스》, 《승리의 열정》, 《빅 브랜드, 성공의 조건》, 《리스크(신을 거역한 사람들)》 등 다수가 있다. 현재 <뉴스위크> 한국어판에 '번역의 세계'와 'Real English'를 연재중이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번역계, 나아가 출판계는 간간히 회소식과 함께 신나는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젊은 학자들'로 구성된 모 연구회에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영미 고전문학 번역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그 '샘플 평가'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무려 4억 원의 지원금으로 연구에 몰두한 그들은 그동안 출간된 다수의 번역본에서 무수한 오역과 누락, 첨가, 빼끼기를 찾아냈고, 신뢰성이나 충실성, 문학적 이해도 부족 등을 밝혀냈으며, 그리하여 그동안 '아무도 모르던'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번역가의 부족',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열악한 출판현실' 등과 같은 사실들 말이다. 너 무나도 뜻밖이고 고마운 지적에 황감함에 젖는 것도 잠깐, 나는 이러한 소식이 필연적으로 자극하고야 마는 지적 호기심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젊은' 학자분들이라면 번역 경험도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번역평가라는 작업을 맡을 수 있었을까? 그 유능한 분들에게 번역계의 일반적인 조건, 즉 통상적인 기간과 고료를 제시하며 번역을 맡아달라고 하면 과연 기꺼이 응해줄까? 그 돈으로 만약 번역평가를 지원하는 대신에 번역 자체를 지원했다면, 벌써 얼마

나 많은 좋은 번역서가 우리 곁에 생겨났을까? 그런데, 학술진흥재단이 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설마, 세금...? 아, 우매한 범인凡人이여! 나는 곧 깨달음에 이른다. '선수 따로, 심판 따로'라는 게임의 기본 규칙을 망각하다니. "땅도 안 파고 시멘트를 부을 수는 없다"는 토대 구축의 기본 원리도 생각 못 하다니. 모든 일에는 책임자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 이것은 예비단계가 분명하다. 이제 그 모든 사실을 발견했으니, 학술진흥재단에서는 곧바로 다음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번역가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문적이고 유능한 번역가들을 그에 걸맞게 대우해 뛰어난 후학들이 몰리게 만드는 것밖에 없음을 알았을 테니, 필경 40억 원 정도의 번역진흥기금 내지는 번역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열악한 출판현실을 개선하려면 장기적으로 적잖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파악했을 테니, 최소한 400억 원 정도의 출판진흥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계획을 짤 것이다.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저 한 편의 코미디나 보여주려고 - 물론 코미디 구경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긴 하지만 -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유능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은 것은 아닐 것 아닌가. 아, 이제 드디어 우리 번역계도 발전의 행보를 내딛게 되는가 보다. 신나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한**